

# 보고서

NS 등급 10

날짜: 4월 14일

발신: 존 S. 스프링맨(백악관 국가안보국 부국장)

수신: 로저 워터스폰(국토안보부 수석부장)

제목: 중간보고서

지난해 말 대참사 이후 의회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밀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간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곳곳에 애매하고 미심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일어난 사건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모든 관련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더 상세하게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열흘 내에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역시 열흘 내에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고, 삭제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회의 당시 수석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느낌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한 사건들, 우리가 여전히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건들은 뉴욕에서 모두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1주

## 보고서, “대다수 PC 보안 미흡”

이시드로 라마  
인터넷 뉴스 서비스  
8월 10일

수요일 발표 보고서, 전체 컴퓨터의 80%에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 주요 사이버 보안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 PC 대부분에 필수 보안 장치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정용 PC에 방화벽, 안티스파이웨어 또는 최신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보안협회(ISA)의 한 대변인은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실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4년 전 처음으로 가정용 PC 보안 조사가 실시된 이후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저장이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 보안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스스로를 악용 당할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군 당국과 정부 컴퓨터의 상황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주)인터넷 뉴스 서비스. All rights reserved.

# 1

뉴욕 맨해튼  
8월 11일 토요일  
새벽 0시 01분

“shit!”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리자 남자는 멈춰 섰다. 남자의 눈앞에서는 통유리로 된 벽면이 포스터에서 튀어나온 듯한 맨해튼 시내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12개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 덕분에 방이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았다. 모니터마다 피셔맨 플라트 앤 코헨의 로고가 떠다니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남자의 팔을 건드리며 그의 손목 안쪽 부드러운 살갓을 살짝 눌렀다. 그녀의 체온은 그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한껏 달뜬 그녀를 생각하자 그는 더더욱 흥분됐다.

그녀는 그를 끌어당겼고,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이리로 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애무하려고 했지만 보이는 건 마치 부르카를 두른 듯한 덩어리로 보이는 그녀의 형체뿐이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고 그녀는 그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그 위로 올라왔다. 그녀에게서는 꽃향기가 났고, 페퍼민트와 마지막으로 핀 담배 맛이 나는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고 따뜻했다.

한참이 지난 후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그는 나일론 옷감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의 스커트가 카펫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소파 위에 길게 누운 그녀의 모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양복 재킷을 입고 있음을 기억했다. 그가 재킷을 벗는 동안 그녀는 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단단해진 그의 것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의 팬티를 내리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는 그것을 움켜쥔 손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가 그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신음하는 그들 뒤편에서는 컴퓨터 한 대의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푸른색으로 변한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나타났다.

Rebooting……

몇 초 후 화면이 깜빡이더니 또 다른 문구가 나타났다.

NO OPERATING SYSTEM FOUND.

그리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188편

뉴파운드랜드에서 843마일 거리의 북대서양 상공

8월 11일 금요일

오전 0시 01분

기장 로버트 매킨타이어가 PFD(현재 비행 상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는 주계기판\_역주)의 눈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조식으로 제공된 기내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매킨타이어 옆에는 부조종사 션 존스가 반쯤 낮이 나간 듯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민항기 조종사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었다.

두 대의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그들 뒤편 멀리서 들려왔다. 외부에서는 낮은 쉿쉿 소리를 내며 대기가 기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289명의 승객을 태운 보잉787 드림라이너는 거의 스스로 날고 있었다. 일단 순항고도인 37,000피트 상공에 이르면 조종사들은 기기 장치를 모니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보잉787 드림라이너는 자동으로 이륙과 비행을 하고, 조종사의 도움 없이 착륙도 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by-wire)’ 기술로, 이는 항공기가 최신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연료 조절판과 요크 등 수동 제어장치는 다른 장치들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전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이들 수동 제어장치들은 항공기에서 제어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동시키는 전자 신호를 방출했다.

심지어 항공기 자체도 컴퓨터가 설계한 것이었다. 컴퓨터가 워낙 믿을 만했기 때문에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상업용으로 인증을 받은 후 프로토타입 생산 없이 바로 양산에 들어갔다. 매킨타이어는 가끔 787기는 자신이 조종해 본 기종 중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비행기라고 말하곤 했다. “뉴욕에서 뭐 좋은 계획 있나?” 그는 부조종사 존스에게 물었다.

존스는 몇 초간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기장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커피 마시겠나? 정신이 좀 없어 보이는데.”

존스는 하품을 했다. “아뇨,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지겨워서요. 아시잖아요?”

매킨타이어는 손목시계를 봤다. 아직 뉴욕에 도착하려면 한 시간 이상 남았다. “잘 보고 있다고. 30분 안에 녹음 모드로 들어가니까.”

조종석의 보이스 레코더는 한 시간 30분마다 작동하며, 한 번에 30분씩 녹음을 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100퍼센트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때는 30분이 한참 지난 시각이나 이륙 후 첫 한 시간 이내 뿐이었다. 조종실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 그 시간 중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일단 상공에 오른 787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계획’ 말씀하셨죠? 별 계획 없습니다. 기장님은 어떠세요?”

“글쎄, 공원 산책이나 하겠지. 다른 걸 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잖아.”

“그렇군요. 사모님이 들으면 좋아하시겠는데요.” 존스는 밖을 힐끔 보았다. “기장님, 고도가 얼마죠?”

“어디 보자. 정확히 37,000피트……. 아니 이런, 42,000피트잖아.” 매킨타이어는 에러를 찾는 것처럼 문자판을 다시 훑어보았다. 항공기가 너무 부드럽게 날고 있어서 두 조종사 모두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다. “PFD에 뭔가 보이냐?”

“아뇨,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자동비행 중인 게 맞죠?” 그들은 런던에서부터 자동비행(오토 파일럿) 모드로 비행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비행 전에 항

공기 종합 정비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고 최신으로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체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오토 리셋 중이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후 그는 말했다.

“고도가 42,400에서 더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션?”

존스는 입을 꼭 다물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갈까요?”

항공사는 조종사들에게 이륙과 착륙 준비 외에는 절대로 수동 비행을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주었다. 컴퓨터로 운항을 하면 조종사들이 운항할 때보다 연비를 5퍼센트나 높여 비용을 크게 절약해 주기 때문이었다.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운항을 하면 비행 데이터 레코더가 비행 전부터 비행 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고, 조종사들은 수동 운항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대기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존스가 차분히 말했다. 지금 오토 파일럿은 기체를 적정 고도에 유지하지도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대기속도를 다시 높이도록 엔진 파워를 높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고도 42,9000에서 하강 중.” 매킨타이어가 말했다.

그들 뒤편의 문이 열리면서 승무원 사무장 낸시 웨스트모어가 들어왔다.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그들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기속도 378에서 하강 중.” 대기속도 378은 시속 378킬로미터라는 의미로, 기준 순항속도 945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였다. “고도 43,300에서 상승 중.” 존스가 말했다.

“앉아, 자기.” 매킨타이어가 말했다. “안전벨트 매. 수동으로 갈 거니까.” 예쁜 얼굴에 금발머리인 웨스트모어는 놀라서 얼굴이 노랗게 질린 채 보조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땀다. 매킨타이어와 웨스트모어는 3년이 넘게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기장님, PFD에 과속 비행이라고 나옵니다.” 컴퓨터는 항공기가 정상 비행속도를 초과해 한 계층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매킨타이어는 놀라서 제어장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금 대기속도가 197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요크 셰이커가 가동됐고, 매킨타이어 앞의 요크 스틱이 덜컥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만들어진 항공기에서는 요크가 제자리에서 흔들렸지만, 787기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들에게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여 주었다.

바로 그때 정지 경고가 켜졌다. “거의 스톨 상태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수동 전환한다. 지금.”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고. 곧 정지합니다. 경고. 곧 정지합니다. 경고…….”

그러나 오토 파일럿을 해제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장님, 기수를 내리고 계십니까?” 존스가 살펴보며 물었다. 그는 매킨타이어가 요크를 앞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

“반응 없음.” 매킨타이어가 말했다. “아무 반응도 없어, 세상에!”

“대기속도 156, 스톨. 고도 43,750에서 아직 상승 중. 제기랄!”

바로 그때 4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날고 있던 787기는 비행을 멈추었다. 마침내 기수는 위로 들렸지만 190톤이 넘는 기체는 비행을 멈추었고, 곧 8마일 아래의 푸른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치자 조종실의 세 사람은 거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 웨스트모어는 눈을 감은 채 소리를 지르지 말자고 다짐하며 입을 앙다물었다. 그들 뒤편에

서는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항공기는 대기를 뚫고 전방으로 나아가며 움직임을 제어하는 ‘비행’이라는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787기는 항공기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물체로서 추락하고 있었다. 매킨타이어는 아무 말없이 요크를 뒤로 확 젖혀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제어하고 기체를 수직으로 세워보려 했다.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뒤집힌 채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들은 실종되는 것이었다.

존스는 낮은 소리로 읊조렸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는 PFD를 살폈다. “대기속도 280, 고도 29,000.”

“제기랄.” 매킨타이어가 말했다. “아무 반응도 없어.” 요크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다. 비행기는 전혀 제어가 되지 않은 채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오토 시작!”

닫힌 문 뒤에서는 더 많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두 조종사의 귀에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존스는 앞으로 몸을 굽혀 오토 파일럿을 작동시켰다. 두 조종사 모두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돼 있었고, 오토 파일럿이 그들이 낼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토 파일럿으로 손쉽게 항공기를 구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조종사들이 잘못된 조치를 반복하며 비행기와 씨름하다가 결국 기체가 추락했던 예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기다려. 시간을 줘 보자고.” 매킨타이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참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흔들리다가, 설계된 대로 스스로 위치를 바로잡았다가는 다시 왼쪽으로 흔들렸다.

“대기속도 495에서 상승 중. 고도는 27,000에서 하강 중.” 존스가 말했다. 그는 성모송을 다시 외기 시작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매킨타이어가 중얼거렸다. “내 말 들어. 오토 중지. 조절판 가동 중지!”

이제 항공기는 급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기체가 바다를 향해 빠르게 하강하자 승무원들은 대기속도가 증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탑승객들은 절망에 찬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정면에 있어야 할 수평선이 저 높이 보였다.

“대기속도 770, 고도 22,000!” 존스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다.

“제기랄! 빌어먹을!” 매킨타이어가 비행기에 욕을 했다. “재부팅해.” 그가 명령했다. “망할 놈의 컴퓨터, 재부팅하라고! 어서!”

존스는 PFD에서 눈을 떴다. “재부팅.” 그들은 비행 중에는 절대로 재부팅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던 터였다. 재부팅은 지상에서 하는 작업이었다. 존스는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재부팅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기장님. 무반응이에요! 잠겨 있어요!”

“전원 꺼.” 매킨타이어의 얼굴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서. 시간이 없어!”

존스는 오른쪽을 보며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쓸어 마스터 스위치를 찾은 후 전원을 꺼버렸다. PFD 화면이 검게 변했다.

“기다려!” 매킨타이어가 재빨리 외쳤다. “잠시만 뒤 봐. 오케이, 지금 꺼!”

존스는 스위치를 켜다. “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 앞의 눈금판이 다시 켜졌다.

뒤편에서는 공포의 고함소리가 계속되고, 중간 중간 시끄러운 소음도 들려왔다. 머리 위 선반에 넣어둔 승객들의 짐과 노트북이 날아다니며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부딪히고 있었다.

“오토 시작!” 매킨타이어가 말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직도 재부팅 중입니다.” 존스가 말했다. 그들은 대기속도도 고도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제 생각에는 고도 15,000에 대기속도 836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의 순항 대기속도에 도달해 있었다. “지금 급속히 추락 중입니다.”

787기는 기수가 지상을 향한 채 추락하고 있었다. 기체 외부에서는 비행 제어 능력이 회복됐지만, 요크는 여전히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추락의 감각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조종사들 뒤에서는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새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다. 매킨타이어는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웨스트모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자기, 조용히 해.” 그는 겁에 질린 웨스트모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제발!” 그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오토 중지!” 눈앞에는 드넓은 푸른 바다가 유리창 한 가득 들어왔다.

“재부팅됐습니다!” 존스가 외쳤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항공기가 갑자기 요크에 반응했다.

“이런, 망할.” 존스는 말했다. 매킨타이어는 기수를 들어 올리려 애쓰기 시작했다. 이제 눈금판에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기속도 915, 고도 8,000! 기장님, 살살 하세요, 살살이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기체의 추락을 멈추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기체가 통제불능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다.

매킨타이어는 계속 요크를 잡아당겼다. 그는 얼굴이 팜범벅인 된 채 짧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기체는 멈추어 서고 있었지만, 수평선은 아직도 한참 위에 있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다.

“대기속도 1,034, 고도 4,000! 제기랄!”

매킨타이어는 더욱 힘을 주어 요크를 잡아 당겼다. 매킨타이어가 역지로 기체의 강하를 막자 관성의 힘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대기속도 1,107, 고도 3,000!”

“제발, 이놈아. 말 좀 들어라.” 매킨타이어는 요크를 쭉 잡아당기는데, 항공기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망할! 제기랄!” 존스는 말했다. 관성력이 그들을 조종석 깊숙이 내리 눌렀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망할 놈아.” 뒤에서는 웨스트모어가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대기속도 1,122! 고도 2,300!” 존스가 거의 가성에 가까운 하이 톤으로 외쳤다.

“올라가, 이 자식아. 올라가라고!”

그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들어 올리듯이 갑자기 관성력이 사라졌다.

“올라가고 있어요!” 존스가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대기속도 1,103, 고도 2,600!”

BA188은 마치 미사일처럼 상공으로 치솟았다.



# 02

뉴욕 맨해튼

피셔맨 플라트 앤 코헨

8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07분

“커피 드릴까요? 데니쉬 페스트리 드실래요?” 여자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뇨, 괜찮습니다.” 제프 에이킨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상무님은 금방 오실 거예요.”

급하게 뉴욕으로 온 탓에 아직도 멍한 상태인 제프는 굳이 눈앞의 매력적인 광경을 즐길 생각이 없었다. 리셉션니스트는 아직 이십 대의 나이에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날씬하고 한눈에 봐도 탄력이 느껴지는 몸매였다. 하지만 너무 앞선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자다가 이제 막 일어난 머리를 스프레이로 그대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제프는 토요일 밤(사실은 일요일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때 그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널브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셔널 인터뱅크 차지 카드 서비스에서 밤낮 없이 계속됐던 프로젝트를 이제 막 끝낸 참이었다. 그 카드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너무나 허점투성이라 크래커(불법행위를 하는 해커)들이 4백만 명이 넘는 ‘소중한’ 고객들의 개인 계정을 조직적으로 빼내 갔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데이터 절도 행위는 적발되기 전 이미 2주간이나 지속됐다고 했다. 제프가 추적한 바로는 정보 유출이 3개월여 전부터 발생했고, 사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정보 유출이 지속된 것 같았다.

그가 맨해튼으로 가겠다고 하고 상당한 보수를 협상한 후, 카드회사의 새 NICCS 시스템에 설치한 보안 점검을 완료하는 데 일요일 하루가 꼬박 걸렸다. 그는 그것으로 카드회사가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연방 규제당국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 회사가 그에게 지불하는 보수의 단 천분의 일이라도 정기 보안 점검에 할애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시대를 앞서간다는 기업 중역이라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제프는 항상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20세기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었다.

제프는 겨우 시간에 맞춰 오마하 공항에 도착해 뉴욕행 밤 비행기를 탔다. 9/11 때 약혼녀 신시아가 세상을 떠난 후 뉴욕에는 처음 가는 것이었다. 그는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할 지경이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 끔찍한 일을 다시 한 번 겪는 듯한 느낌이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 체크인을 하고 샤워를 했을 때쯤에서야 그는 끔찍한 기억들을 한쪽으로 밀어둘 수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90분간 눈을 붙인 후,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피셔맨 플라트 앤 코헨에 도착했다. 9시에 조슈아 그린 상무와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에이킨 씨?”

제프는 눈을 뜨고 자신이 잠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계를 보니 9시 23분이었

다. “예.”

“상무님과 태버 씨가 지금 회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정말 커피 안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블랙으로요.” 그는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넉넉히 주세요.”

리셉셔니스트는 반짝이는 하얀 치아를 내보이며 웃었다. 그리고 그를 상무 사무실로 들어가는 쌍 여닫이문으로 안내했다. “지금 바로 커피 갖다 드릴게요.”

리셉션 공간은 1920년대 아르데코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건물 연식과 외관의 모티브를 볼 때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제프는 갈색 페니로퍼에 구깃구깃한 황갈색 면바지, 짙은 푸른색의 여행용 블레이저와 그에 어울리는 연한 파란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회사 사무실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부른 것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 때문이지 그들의 옷차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180cm의 키에 짧은 연갈색 머리와 짙은 색의 눈동자를 지닌 제프는 36세였고, 이런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나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유지했다.

사무실에는 유리처럼 반질거리는 널찍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변호사인 조슈아 그린은 좋게 말하면 잘 차려 입은 모습이었고, 영화 <야망의 함정>에 나오는 진 핵크만을 떠올리게 했다. 그 영화는 마피아의 로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진 핵크만은 악역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IT 담당자였다. 그녀도 제프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 여행자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깡이나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스타일이었다.

수트를 말끔히 차려 입은 그린의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이쪽은 IT 매니저 수 태버예요. 함께 회의를 하는 편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 불렀습니다.”

“저랑은 지난 토요일에 통화하셨죠?” 수는 일어서서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네, 기억납니다. 어렵쪄요.”

리셉셔니스트가 큰 컵에 담긴 블랙커피와 제프가 부탁하지도 않은 데니쉬 페스트리를 가져다 주는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리셉셔니스트가 더 필요한 것 없으시냐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린은 손짓으로 그녀를 내보냈다.

수는 날씬한 몸매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20대 후반이었고, 새카만 머리칼은 보브 스타일로 스타일리시하게 커트돼 있었다. 얇은 입술은 마치 새빨간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았고, 제프가 보통 회사 사무실에서 보던 여자 직원들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셔츠 속에 숨겨진 가슴은 크지 않아 보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힘주어 제프와 악수를 했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린은 60세 정도 돼 보였고,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온 것 같았다. 어깨는 넓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무테안경을 썼는데, 안경 렌즈는 수정으로 만든 것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체격이었다. 수는 억양으로 보아 분명 웨스트코스트 출신이었고, 그린은 중서부 어딘가에서 온 것 같았다. 제프는 오마하에서 지금 그린의 쓰는 자니 칼슨 같은 말투를 많이 들어보았다.

“에이컨 씨,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지만 수에게 일임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상황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변호사 한 명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혼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컴퓨터도 체크를 했지만 한 대도 작동이 안 됐대요. 그래서 수가 호출을 받고 나왔고……. 이 부분은 잠시 후 수가 설명하도록 하죠.”

그린은 목청을 가다듬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로펌은 작년 매출이 9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는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수의 말로는 지금 사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와 과거의 소송 기록, 이메일, 청구 기록까지 모두 말입니다. 게다가 파일 일부 또는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지기 전에는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백업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린은 마치 제프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전혀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끊겼고, 변호사들은 기존 소송 건에 대해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떠날 수 있는 고객들은 떠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원래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수는 제프를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서버 부팅이 안돼요. 시스템에 아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부팅한 후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될지 몰라도 부팅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죠?” 제프가 물었다.

“지금 변호사들은 인터넷 사업자의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이메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수가 말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노트북에 파일을 저장해 놓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백업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백업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제프가 물었다.

“야간에 각 컴퓨터를 인하우스 마스터 서버에 백업해요. 주 1회 백업 테이프를 만들어서 화재 방지가 돼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세컨드 백업 테이프를 만들어 외부 금고에 보관합니다.”

“다행이네요. 작업할 거리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거의 없어요. 시스템 접근이 안 돼서요. 최소한 저는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린이 말했다. “컴퓨터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젊은 변호사들은 컴퓨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항상 컴퓨터로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이용했으니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에 이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수를 한 번 쳐다보고는 제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업무 결과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에이킨 씨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 로펌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선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청구 기록을 잃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다운돼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상황은 나빠질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이 펜과 종이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도록 해야 하고, 청구 기록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자료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출 흐름이 필수적이니까요.”

제프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들이마셨다. 뜨겁고 씹쓸했다. “직원들이 이미 노트북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말에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부팅하지 말라

고 경고를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일부 직원들은 이미 컴퓨터를 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그 직원들 컴퓨터에 바이러스 스캔과 시스템 체크를 해 보았는데,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를 공격한 게 무엇이든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피해가 메인 시스템에만 국한돼 있어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시스템을 공격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프가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랍니다. 우리 로펌 방화벽은 아주 훌륭하고, 최신으로 업데이트돼 있어요. 항상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고 업데이트하거든요. 제가 ‘최신’이라고 한 것은 매일 업데이트한다는 뜻이에요. 제 어시스턴트가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처리하고, 시스템 보안 스캔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직원은 대부분 변호사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제일 먼저 그 일부터 처리해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의아해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방조치를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정도 조치면 충분했어야 해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제프는 갑자기 정신이 집중되고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번 일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매우 달랐고,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가 자신을 잊고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인 것이다.

그린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제프의 생각이 끊겼다. “지금 다른 파트너들과 회의가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에이킨 씨?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정보를 얼마나 복구할 수 있죠?”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판단이 서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린이 무섭게 말했다. “에이킨 씨 실력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걸 증명해 주시죠.”

# 03

미시건 디트로이트  
8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21분

퐁퐁한 몸집에 머리가 벗겨진 53세 버디 모건은 휴식시간이 끝나기 4분 전에 자리로 돌아왔다. 미국 자동차 노조연맹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에 23년째 몸담고 있는 베테랑 노조원인 그는 근무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새로 설치한 로봇들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며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오랜 술친구인 감독관은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니, 전혀 달랐다. 버디는 오랫동안 에어컨 업무를 맡았었는데, 8년간은 세 개의 너트를 조여 포드 타우루스의 오른쪽 앞바퀴 일부를 조립하는 일을 했다. 아, 아무리 해도 일이 끝이 없던 그 시절은 얼마나 끔찍했던가.

그러나 그 시절은 모두 지나갔다. 이제 그는 연장자였다. 그는 아내 준에게 자신은 이제 기름칠을 하는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했다.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했다. 그가 하는 일은 로봇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 이걸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다. 그가 맡은 영역은 그가 '칠면조'라고 부르는 로봇 14개였다. 각각의 로봇은 땅딸막한 받침 위에 거대한 팔이 붙어 있는 모양새였다. 팔의 맨 끝부분은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 '머리'가 달려 있고 '부리'까지 갖추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으로 로봇은 용접을 했다. 빠르고, 정확하며, 지치는 법 없이 말이다. 이 로봇 무리는 마스터 컴퓨터에 의해 작동됐다. 버디는 자신의 자리에 놓인 더미 단말기를 모니터하긴 했지만, 시스템을 제어할 수는 없었다. 시스템 제어는 대학 나온 애송이들의 몫이었다.

버디는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자리에서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보고, 그리고는 기묘한 춤을 추는 것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끄덕이고 비트는 칠면조들을 바라보면서 보냈다. 그의 자리 주변은 전기 용접하는 냄새와 로봇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의 유쾌하지 않은 단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료라고 해 봤자 30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버디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회사 동료들은 귀찮은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버디의 업무는 아주 간단했다. 칠면조들 뒤를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설계하고 한국에서 조립한 이 로봇들은 믿을 만한 녀석들이라고 그는 종종 말하곤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로봇 중 하나를 오프라인 상태로 끄집어 내 점검을 했다. 정말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었고, 큼지막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로봇들이 조립 라인에서 1.5미터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그가 다가가서 총 여섯 개의 지점에 기름칠을 했다. 그리고는 기계 전체를 닦았다. 기계를 닦는 것은 그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칠면조들을 보기 좋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말 잘 듣는 로봇들은 다시 제자리로 미끄러져 돌아갔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는 것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로봇 중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로봇들이 이를 즉시 알아채고는 오프라인 상태인 녀석의 일까지 맡아서 한다는 점이였다. 굉장하다. 정말 굉장하다. 자동화 때문에 직원들이 정리해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자동화란 정말 멋진 일이였다.

버디는 처음에는 이렇게 최첨단인 로봇에 수동으로 기름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로봇 작동법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말로는 원래는 로봇이 스스로 기름칠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 관리자들이 비용 절감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감독 인력을 충분히 두지 않고 로봇을 가동시켰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 칠면조들이 21세기의 경이로운 업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인간의 존재를 필요로 했다. 결국 해결책은 정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도록 로봇을 설계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버디가 담당하는 로봇 14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알아서 완벽하게 일을 해냈다. 그가 느끼기에 그들은 전혀 소음을 내지 않았다. 그들이 유일하게 내는 소리는 천천히 움직이는 지하철처럼 SUV 프레임을 레일 위로 옮길 때 나는 획획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8번 로봇이 버디를 성가시게 했다. 이미 그 녀석을 세 번이나 오프라인 상태로 점검했고, 그의 상사 에디는 이제 그만 좀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냥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기술 담당자에게 수리를 맡기라는 것이였다. 다른 로봇들이 몇 시간 동안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버디는 일을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내 준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모니터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칠면조들이 최초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인 신형 SUV 프레임을 용접하며 이리저리 고개를 끄덕이고 똑바로 폼다가 비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그러나 에디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가끔은 칠면조 녀석들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다. 칠면조들은 아마도 평생 일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정비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었다. 버디는 8번 로봇에다가 가서 버튼을 누르려 손을 아래로 뻗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는 그의 자리에 설치된 더미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모니터 화면이 리셋되었다.

라인에서는 칠면조들이 그대로 작동을 멈췄다. 그리고는 밀집 대형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 차례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뒤로 쭉 물러났다. 버디는 버튼을 누르려던 것을 멈추고, 깜짝 놀라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였다. 조립 라인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칠면조들은 프레임을 옮기지 않았다. 그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보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14개의 칠면조들이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8번 칠면조가 버디를 부리로 찍어 조립 라인으로 내던져 버렸다. 버디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사지를 뻗고 트랙에 떨어졌다.

너무 놀란 그는 몇 초간 넋이 나간 듯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순간 신형 모뉴먼트 SUV의 프레임이 그의 목 위로 지나갔다.